



“조상의 극락왕생 발원합니다” 8월 27일(음력 7월 15일) 우린분절을 앞둔 13일 한 불자가 조상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영가등을 밝히기 위해 서울 봉은사를 찾았다. 사진=박재완 기자

‘우란분절’ 더 큰 명절로 기리자

**내금강 성지순례 중단
 JTS “북한 수해 돕자”**

북한의 홍수피해로 내금강 성지순례가 잠정 중단됐다. 불교계 일각에서는 긴급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내금강으로 진입하는 도로 및 다리가 유실돼 오는 9월말까지 내금강 성지순례가 잠정 중단된다”고 8월 16일 밝혔다.

문화사업단 관계자에 따르면 “북구에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는 10월 이후에나 내금강 성지순례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국제구호단체 JTS(이사장 범룡)도 16일 서울 인사동에서 북한 홍수피해 긴급지원을 위한 캠페인 ‘고통은 이제 그만, 그날이 오기를’을 열고 시민들에게 생명 살리기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075601-04-000298 (사)한국제이티에스 남동우·여수령 기자

‘○○데이’ ‘○○메이’ ‘△△데이’. 1년 365일이 기념일이다. 그러나 기념일에 ‘축하하거나 기릴 만한 일이 있을 때, 해마다 그 일이 있었던 날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온데간데없다. 국적 불명의 천박한 자본주의가 생산한 각종 이벤트만 횡행할 뿐이다.

8월 27일(음력 7월 15일)은 우란분절, 백중이다. 우리 조상들은 7월 15일을 백중(百中), 백중(百種), 백중(白衆), 백중(白衆), 중원(中元), 우란분절(盂蘭盆齋) 등으로 불렀다. 불자들에게는 우란분절로서의 백중이 의미 깊다.

《대목건련경》과 《우란분절》에는 목련존자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고 있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우란분절에 대중 또는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으로 어머니를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

백중은 절에서 우란분회를 개최해 지옥에 떨어진 조상을 천도하는 날인 동시에 발작물의 수확에 감사하고 벼(논)의 풍요 기원하며

‘조상에 재 올리는 날’로 의미 축소
 ‘孝·자비·참회’ 등 의미 전승해야

농부들이 한바탕 신나게 노는 날이었다. 서민들에게는 죽은 조상을 불러 제사를 지내는 망혼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 백중은 불자들이 절에 가서 조상을 위해 재를 올리는 날로만 의미가 축소됐다.

백중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불교와 중국문화의 영향이 큰 동아시아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보편적인 행사다. 일본은 우란분회를 설날에 필적할 만큼 2대 명절로 발전시켰고, 대만에서도 그에 못지않게 큰 행사를 벌인다.

이에 비하면 우리의 백중행사는 너무 초라하다. 노성한 교수(울산대 일본어·일본어학과)는 “백중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그 의미를 현대사회에 맞춰 되살릴 필요가 있다”며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백중을 ‘효’를 실천하는 날로 만들자. 백중은 효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불교 행사다. 이것을 바탕으로 죽은 조상뿐만 아니라 산 조상도 위하는 날로 만들어 가자. 자신의 부모를 비롯해 불우한 노인들을 돌보는 효의 날로 삼자.

둘째, 할렙고 굶주린 이웃을 돌보는 ‘자비’의 날로 만들자. 중국과 일본에서는 자신의 조상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이승으로 오는 아귀들에게 베푸는 시아귀회(施餓鬼會)를 빠뜨리지 않는다. 백중을 기해 자라아터(지옥)로 한 자비를 실천하는 날로 만들자.

셋째,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는 ‘참회’의 날로 삼자. 하안거 해제날이기도 한 백중에는 스님들이 안거 동안 지은 죄과를 여러 대중에게

고백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날 대중들도 같이 참회한다면 1년 중 나머지 절만은 근면하고 선량한 마음으로 채워질 것이다.

넷째, ‘연행’을 조심하는 근신의 날로 하자. 대만에서는 7월 내내 몸가짐을 경건하게 하고 말과 행동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바쁘게 살아가며 거친 말을 마구 쏟아내는 현대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다.

다섯째, ‘불교민속예능’을 발전시켜나가는 계기로 삼자. 우란분회는 목련의 효도 있고, 지옥이라는 테마도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중국에서는 목련회 화회가 성립됐고, 일본에서는 지옥도로 죄업을 짓지 말라고 가르친다.

백중은 단순히 절에서 조상들을 위해 재를 올리는 날이 아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 백중을 ‘효’의 날로, ‘자비’의 날로, ‘참회’의 날로, ‘연행’ 주의의 날로, ‘불교민속예능’의 날로 계승·발전시키자.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社 告

‘자비명상 지도자’의 품 펼쳐주세요

현대불교신문사는 나누는 기쁨 공동체와 자비명상 초급지도자 과정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교육일정 주 1회 2시간씩 8주

주제	일정	프로그램 주제	내용
불교 상담의 접목	1주	교육 일정에 대한 소개 마음나누기, 자비명상	교육의 목적과 의의에 대한 설명, 자비명상 안내와 실습하기
	2주	명상으로	자기 긍정 명상, 팔 감사 명상
	3주	이어지는 프로그램	구나, 갯지, 감사 명상, 유서 쓰기
자비로운 대화 훈련	4주	대화 훈련 1 -듣기와 반응하기	신도·일반인들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방법 익히기
	5주	대화 훈련 2 -칭찬하기	신도·사찰 중사들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한 칭찬 연습하기
	6주	대화 훈련 3 -공감	타인의 말을 효과적으로 공감하여 표현하는 방법 익히기
	7주	신도대화(상담)실습	신도들과의 원활한 상담을 위해 전 주에 배웠던 기법을 응용해 실습
	8주	정리하는 마당	스님들과 마음 나누고 칭찬 주고받기

● 4박 5일 집중 과정 일정표

시작하는 날	초기 - 과도기 - 작업 - 종결단계				다섯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09:00~12:00(3)	이론 강의와 실습 1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마음 나누기 마무리	
14:30~17:30(3)	오리엔테이션 참가자 소개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19:00~21:00(2)	집단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집단상담	

- 장소: 법륜사(8주교육), 집중수행과정 (장소 일정 추후 공지)
- 기간: 9월 3일~10월 22일
- 대상: 스님(15~20명), 재가자(15~20명)
- 일시: 매주 월요일 스님(오후 2~4시), 재가자(오후 7~9시)
- 접수 방법
-1단계: 원서접수(7월 4일~8월 30일)-자기소개서(사전접부), 수행이력서
*접수는 팩스 또는 이메일 (godory700@hanmail.net)
- 수업료: 200만원
- 특전: 나누는 기쁨 공동체회원장 인증 명상지도자 초급자격증 부여
- 문의: TEL. (02)2004-8237, 팩스: (02)737-0698
- 주최: 나누는 기쁨 공동체, (주)현대불교신문
- 강사: 마가 스님

“법륜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들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취급업무◆
 민사·형사
 가사·형정

법륜사무소 서안
 전 화 031387-5401 팩 스 031387-5409
 유대문 010-7504-4521(강령화 변호사)
 017-535-0695 (김원 변호사)
 010-4488-3740(김택선 변호사)

- 지면안내
- 종합 / 관공사 사태 관련자 정계 결정 2
 - 법석 / 건봉사 영불원장만 오스님 ... 9
 - 즐거운생활 / 안전한 먹거리 가이드 ... 10
- 백중특집색션
- 우란분절 이야기 26 ~ 28
 - 손현수 이사장에게 듣는 孝 29
 - 효행사찰 용주사 30
 - 미리가 본 2020년 창례특집 31

성불조각원 www.sungbul.or.kr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치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사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 전시장: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 화: 033)263-1102 · 017-379-0590 / 경남지사 011-588-8317

성불조각원이 하는 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용두..
- 연, 법상, 목어, 불명패,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드립니다.

서울 송림원 석가모니부처님
 신홍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나한
 온양 수암사 지장 목탱화